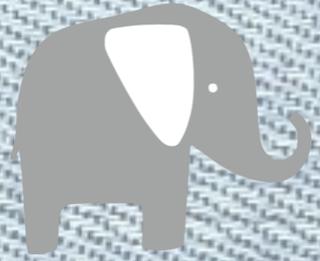


책수다 시즌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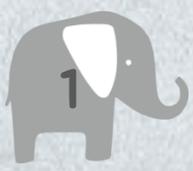
# 내 안의 코끼리



두 번째 만남

EBS

자본주의



# 지속가능한발전목표와 나, 무슨 관계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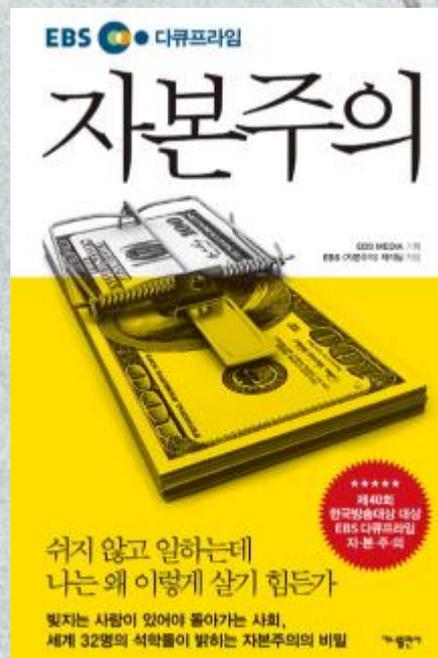
지속가능한발전 목표 10.5는 금융 시장에  
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

**“전 세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 
규제하고 감찰하는 방안을 개선하고,  
규제 이행을 강화”**



# 금융 시장이라고 하면, 뭐가 떠오르시나요?

재테크나 펀드, 아니면 월 스트리트를  
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도서 <EBS  
자본주의>는 금융 시장에 대한 새로운  
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.





**쉬지 않고 일하는데,**

**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?**

누구나 한 번쯤 가져 봤지만, 아무도 속  
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던 질문.

도대체 이 질문이 금융 시장과 어떤 관계가  
있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


# 이-빚이 있어야 자본주의는 돌아간다

대출,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대출이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.

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 
은행은 화폐가 아니라 **신용을 기반으로  
돈을 창출**하기 때문입니다.



예를 들어, 중앙은행이 100만 원을 발행했고, 이 돈은 모두 영희가 가져갔다고 가정합시다. 그리고 이 돈을 가진 영희는 상업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. 그럼 은행은 10%를 제외한 나머지 90만 원을 철수에게 대출해 줍니다. 결국 100만 원이 **190만 원**을 만들어낸 셈입니다.





## 02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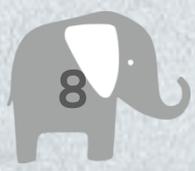
시간이 지나 철수는 대출과 이자를 갚고 싶습니다. 그런데 시중에는 화폐가 100만 원 밖에 없습니다. 은행이 10만원, 90만원은 철수가 대금을 지불한 공장 주인에게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철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

# 그렇다면, 어떻게 해야할까요?

방법은 하나입니다.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





우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통화량을  
조절한다고 알고 있지만, 사실 통화량이  
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한다가 더 맞는  
표현입니다. 신용 통화가 존재하는 이상,  
화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





## 03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

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 본 말일 겁니다. 돈의 양이 많아지면, 가치가 하락해 물건 값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. 늘어난 화폐, 그 결과는 오르는 물가입니다. 지난 수 십년 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




## 04 인플레이션 뒤에는 금융 위기가 온다

돈의 양이 늘어나면, 물가가 오르고,  
인플레이션이 옵니다. 그런데 이때,  
통화량을 조절하지 않고 한 없이 팽창하게  
놔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



은행은 처음에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. 그러나 점점 대출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. 결국, 통화량은 늘어나고,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.





사람들은 호황이 계속 된다는 기대감에,  
생산 활동보다 소비 활동에 돈을 씁니다.  
비싼 옷을 사고, 차를 바꾸며 평소에  
사고 싶었던 것들을 구입합니다.  
그러다 결국엔 대출을 갚을 수 없는  
상황에 이르면 거품이 꺼지면서  
**금융 위기가 옵니다.**  
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 
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



# 05 재테크 열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

은행은 계속 보이지 않는 돈을  
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품을 만듭니다.  
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 
펀드나 서브프라임모기지과 같은  
**금융 상품**이 있습니다.



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,  
그래서 더욱 솔깃한 재테크는 투자라는  
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.  
하지만, 금융 기관이 무리하게 금융 상품을  
만들어내는 바람에 금융상품은 지금  
**금융 위기의 주범**이 되고 있습니다.

이것이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을  
규제해야하는 이유이며, 열심히 일해도  
살기가 팍팍한 이유입니다.